

# 기하학 패턴 재킷 + 레깅스 가을 아웃도어 패션의 완성

## OUTDOOR & TREND

### 눈길 확 끄는 아웃도어 패션 아이템

화려한 재킷에 톤다운 이너 조합 추천  
알록달록 얼룩무늬 밀리터리룩도 인기  
레깅스도 가을 아웃도어룩 필수아이템  
밝은 컬러 등산화·방한모자로 포인트

전국의 산이 활활 타오르는 본격 단풍철이다. 손을 대면 물어날 듯 고운 색을 입은 산은 보기만 해도 등산객들의 마음을 설레게 한다. 단풍철에는 등산객들의 옷도 산을 닮는다. 화려한 컬러와 패턴으로 무장한 옷도 좋지만 은은한 파스텔 톤의 옷도 가을산과 궁합이 잘 맞는다. 진정한 아웃도어 패셔니스트는 산에서 더욱 빛이 나는 법. 사람들의 눈길을 '확' 사로잡을 수 있는 아웃도어 아이템을 소개한다.

#### ●화려한 패턴재킷에 톤다운 이너로 가을룩 완성

단색 심플한 다운재킷의 물결 속에서 자신만의 개성을 표현하고 싶다면 화려한 패턴이 적용된 재킷이 제격이다. 심플한 디자인과 톤다운된 이너를 함께 입어주면 좋다. 여기에 니트 소재의 모자로 포인트로 주면 산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멋진 아웃도어 가을룩을 완성할 수 있다.

코오롱스포츠는 그 동안 아웃도어에서 사용하지 않았던 기하학적인 패턴과 뉴욕 팝아트 미술작품에서 영감을 얻은 신선한 아이템을 앞세웠다. '남성 동절 다운 내피 디테저를 방

수재킷'(39만원)은 기하학적인 패턴을 전판에 프린트해 시크한 느낌을 준다. 뉴욕의 아르데코 건축물, 마천루에서 영감을 따왔다.

'여성 기하학 프린트 방수 롱재킷'(23만원)은 모노톤의 기하학적 패턴으로 포인트를 주었다. 허릿단과 밑단 안쪽 스트링, 소매단의 벨크로 밴드를 이용해 피트를 조절할 수 있어 편안하면서도 날렵한 실루엣을 만들 수 있다.

'여성 팝아트 후드티셔츠'(9만8000원)는 팝아트를 테마로 경쾌한 느낌을 주는 티셔츠. 상복부를 컬러풀한 느낌으로 재해석한 그래픽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킨다.

노스케이프의 '수채화 프린트 미들다운재킷'(36만9000원)은 한 폭의 수채화같은 프린트가 돋보이는 제품이다. 오프로드의 '킹스턴'(14만9000원)은 기하학적인 패턴이 돋보이는 플리스 집업으로 높은 채도의 컬러가 시선을 끄는 효과가 있다.

#### ●울긋불긋 단풍철엔 얼룩무늬 밀리터리룩이 제격

사람들의 눈길을 끌고 싶다면 패턴 못지않게 컬러도 중요하다. 센터폴의 '루체른 M방수재킷'(38만9000원)은 노란 은행잎을 연상시키는 머스터드 옐로와 빨간지 느낌의 브라운 컬러배색으로 포인트를 주어 세련되면서도 부드러운 느낌을 준다. 캐주얼한 룩의 아우터로 잘 어울린다.

역시 센터폴의 가을 주력제품인 '플라이 라이트'는 가벼운 무게와 기능성을 갖춘 등산화. 5가지 컬러로 출시돼 신세대 아웃도어족에게 인기가 많다. 특히 산에서 사람들의 시선을 사로잡는 '네온 오렌지' 컬러제품이 여성 등산객들에게 사랑받고 있다.



◀머블 카모플라주 플리스 재킷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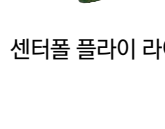
오프로드 레이카비크 털모자 ▶



◀센터폴 노르딕 사카리바 레깅스



▲오프로드 킹스턴



센터폴 플라이 라이트 ▶



◀'수채화 프린트 미들다운재킷'을 입은 노스케이프 모델 하지원. 단풍철을 맞아 화려한 프린트와 컬러, 날렵한 실루엣으로 무장한 가을 아웃도어 패션이 인기를 끌고 있다. 사진제공 | 노스케이프

#### ●멋쟁이 여성들의 아웃도어룩 '레깅스'

'하의실종' 패션이 여름을 누볐다면 가을부터는 '레깅스'가 왕좌를 이어받는다. 등산치마와 레깅스를 매치해 자신만의 스타일을 뽐내는 젊은 여성 등산객들이 늘고 있다. 오프로드의 '에코베이레깅스'(7만9000원)는 패딩팬츠와 레이어드하면 세련된 멋을 낼 수 있다.

센터폴의 '노르딕 사카리바 레깅스'(7만9000원)는 포근한 느낌을 주는 노르딕 패턴과 컬러

감이 포인트인 제품. 활동성과 보온성이 뛰어난 스커트 또는 심플한 반바지에 매치하면 좋다.

모자도 가을산 멋내기엔 빼놓을 수 없는 소품이다. 오프로드의 '레이카비크 털모자'(6만9000원)는 안감에 파베색과 충전재를 넣어 보온성을 높인 방한용 귀덮개 패딩모자다. 측면의 패치장식이 세련되고 캐주얼한 느낌을 준다. 귀덮개 버클을 이용하면 다양한 연출을 할 수 있다.

양형모 기자 ranbi@donga.com 트위터 @ranbi361

## 이석재 회장 사의 표명 'KT 쇼크'

KT 잇단 악재에 신음...경영공백 불가피  
인공위성 헐값 매각? "관계장비 일부만"

KT가 잇단 악재로 신음하고 있다.

이석재 회장의 사의 표명에 따른 '경영공백' 우려가 현실화 되고 있다. 여기에 최근 위성 헐값 매각에 대한 의혹까지 불거지면서 한바탕 곤욕을 치르고 있다.

#### ●경영공백 불가피

이석재 회장이 지난 3일 사의를 표명함에 따라 KT는 일정 부분 '경영공백'이 불가피한 상황이다. 앞서 참여연대는 지난 2월 이 회장을 스마트애드몰, OIC 란귀지 비주얼 사업 등과 관련해 업무상 배임 혐의로 고발했다. 이후 검찰의 계속된 압박에도 회장직을 유지하겠다는 이 회장이 사퇴를 결심한 이유는 최근 2차례에 걸친 전방위적 압수수색 등 검찰 수사에 부담을 느꼈기 때문인 것으로 알려졌다.

KT는 이사회를 통해 구체적 퇴임일자를 정하고, 퇴임일자 기준 2주 이내에 CEO추천위원회를 구성할 계획이다. 'CEO 리스크'는 기업 입장에서 단기 리스크에 속하지만, 선임 과정 중 일정부분 '경영공백'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업계에서는 특히 KT가 민영화 기업이긴 하지만 그동안 정지권의 입김이 어느 정도 작용해 왔다는 점에서, KT의 행보에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 ●인공위성 헐값 매각 의혹

KT는 인공위성을 외국기업에 헐값에 팔았다는 의혹도 받고 있다. 지난달 31일 미래창조과학부 방송통신위원회 유승희 의원은 확인국가를 통해 "이 회장이 국가 자산인 무궁화 위성 3호를 헐값에 매각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매각과정에서 불법적 방법을 이용한 사실이 드러났다고 강조했다. 무궁화 3호는 2011년 9월 홍콩의 ABS에 매각됐다.

KT는 이와 관련 4일 긴급 기자회견을 열고 "사실과 다르다"고 주장했다. 먼저 국가 자산을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무궁화 위성은 매각 당시 국가 자산이 아닌 민영화 된 KT 소유의 자산"이라고 밝혔다. 저가 매각 논란에 대해선 "위성 자체의 매가가격은 5억원이 맞으나 기술지원 및 관계 비용 등 200여억원대의 관련 계약이 체결됐다"고 해명했다. 아울러 용인 관제소의 경우 kt sat 소유로 매각된 바 없고, 무궁화 3호만을 위한 관제장비 일부만 매각했다고 설명했다. 또 할당 받은 주파수를 위성과 함께 ABS에 매각했다는 주장에 대해선 "주파수는 대한민국 정부가 소유권을 가지고 있으며, 위성매각과 함께 양도된 것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하지만 KT의 해명에도 불구하고 의혹은 더욱 커지고 있다. 법절차를 위반했다는 데 대한 뚜렷한 설명이 없기 때문이다. KT는 이에 대해 "법 위반 여부에 대해서 정부에서 심의 중이기 때문에 정부 판단 이후 입장을 표명하겠다"고 조심스러운 입장을 밝혔다. 한편, 논란이 커지면서 미래창조과학부는 5일 KT가 위성을 매각하면서 전파법과 전기통신사업법 등을 위반했는지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김영민 기자 dionys@donga.com 트위터@kimyke76

## 경제 브리핑



#### 메르세데스-벤츠 '더 뉴 S클래스' 27일 출시

메르세데스-벤츠 코리아(이하 플레그십 모델 The New S-Class(사진)를 11월 27일 국내 공식 출시한다. 2005년 5세대 모델 출시 이후 8년만에 풀체인지 되어 국내 시장에 새롭게 선보이는 모델이다. 감각적인 실루엣과 세련된 디자인을 재해석해 전통이 깃든 클래식한 외관에 흐르는 듯한 실루엣으로 감각적인 순수미가 더해져 모던 럭셔리를 표현해냈다. 특히, 작은 부분 하나까지도 최고를 추구한 완벽함에서 고급스러움의 진수를 보여준다. 또한 자동차의 미래를 제시하며 세계 최초로 선보이는 혁신적인 첨단 기술들이 대거 적용된 것으로 알려져 기대를 모으고 있다.

#### 쌍용차, 경기도와 교통안전 캠페인 후원 협약

쌍용자동차(대표이사 이유일)가 안전한 교통문화 정착 및 어린이 안전사고 예방활동을 위해 경기도를 비롯한 관계 기관과 협약을 갖고 교통안전 캠페인 후원에 나섰다 4일 밝혔다. 이번 업무협약식은 4일 경기 수원의 정자초등학교에서 쌍용자동차 이유일 대표이사를 비롯해 김문수 경기도지사, 김상곤 경기도교육감, 이만희 경기지방경찰청장, 송자 셰이프크즈코리아 공동대표 등 관계자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 쌍용자동차는 관내 주요 기업구성원이자 자동차 기업으로서 교통 안전에 대한 책임 실현의 의미로 이번 캠페인을 후원하게 되었으며, 업무협약을 맺은 각 기관들과 협력해 안전한 경기도를 만들기 위해 다양한 활동을 펼칠 예정이라고 말했다.

#### 기아자동차, K시리즈 '저금리 할부' 이벤트

기아자동차(이하)는 11월 K3, K5, K7, K9 출시 고객에게 기존 대비 최대 5% 낮은 저금리 할부 혜택을 제공하는 '1-2-3 특별 저금리 할부' 이벤트를 실시한다. 기아차는 11월에 K3, K5, K7, K9을 할부 구매하는 고객에게 1.9%(24개월 할부), 2.9%(36개월 할부), 3.9%(48개월 할부)의 금리 해

택을 제공한다. 기아차 관계자는 "2009년 K7을 처음 선보인 후 많은 사랑을 받고 있는 K시리즈 출시 4주년을 맞아 이번 저금리 혜택을 마련했다"며 "앞으로도 다양한 이벤트를 통해 고객의 사랑에 보답하겠다"고 말했다. 저금리 할부 혜택 관련 자세한 내용은 기아차 홈페이지(www.kia.com)를 확인하거나 가까운 지점 및 대리점으로 문의하면 된다.

#### 마모트, 박형식 카모플라주 라인 3종 출시

(좌)블랙야크가 전개하는 '아메리칸 마운틴 슈트' 마모트카 가을 트렌드인 밀리터리 패턴을 기본으로 한 '카모플라주라인(사진)'을 출시했다. 카모플라주 라인인 마모트 전속모델 박형식이 '아기병사 캐릭터'로 출연하고 있는 예능 프로그램에서 이미지를 착안해 기획했다. 이번에 출시된 제품은 '엠시그니처 다운자켓 카모'(45만8000원), '엠시그니처 팬츠 카모'(19만8000원), '카모밀리터리 LS' 티셔츠(6만9000원) 등 카모플라주 3종이다. 카모플라주 프린트를 통해 밀리터리 느낌을 살리면서 기존 패턴의 색상을 벗어난 컬러를 사용해 캐주얼하면서도 스타일리시한 느낌을 연출할 수 있다.

#### 밀레 '히말라야 14좌 캘린더' 공개



프랑스 아웃도어 브랜드 밀레(대표 한철호)가 사진작가 이창수가 히말라야 14좌의 장엄한 풍경을 사진으로 담은 2014년 캘린더 '히말라야 위드 밀레'(Himalayas with Millet·사진)를 공개했다. 이창수 작가가 2012년 7월부터 한 달에 한 번씩 히말라야로 떠나 직접 촬영한 8000m급 14좌 고봉의 광활한 위용을 담고 있다. 칸첸중가, 로체, 마칼루와 같은 히말라야 고봉은 물론 등반가와 함께 산을 오르는 세르파, 휴식을 취하고 있는 현지인들까지 히말라야의 진솔한 모습을 만나볼 수 있다. 2014년 캘린더는 전국 매장에서 모든 구매 고객에게 증정될 예정이다.

편진 | 김대건 기자 bong82@donga.com 트위터 @bong82i

## 국내 모바일게임, 아시아시장 진출 가속도

### 위메이드, 日 법인 설립 등 적극 공략

국내 모바일 게임사들이 해외 시장을 적극 노크하고 있다. 4일 업계에 따르면 국내 게임사들은 일본과 동남아 등 새롭게 떠오르는 해외 시장의 진출을 적극 타진하고 있다. 특히 단순 글로벌 플랫폼에 게임을 출시하는 것에서 벗어나, 현지 퍼블리셔와 손을 잡는 등 더욱 적극적인 방식으로 해외 시장의 문을 두드리고 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최근 일본 라인주식회사와 손잡고 모바일 슈팅게임 '날아라팬더'를 글로벌 모바일 메신저 '라인'을 통해 서비스한다고 밝혔다. 위메이드는 이미 지난해 라인과 전략적 파트너십을 체결한 뒤 '라인 윈드러너'를 일본에 출시해 1000만 다운로드를 돌파하는 등 큰 인기를 얻었다. 이 밖에도 팔콤이 일본의 포커라보를 통해 카드 역할수행게임(RPG) '데

빌메이커: 도요'를 출시하는 등 국내 업체들의 일본 시장 공략이 더욱 속도를 내고 있다.

대만도 새롭게 떠오르고 있는 시장이다. 픽토소프트는 모바일 3D 다중접속역할수행게임(MORPG) '파이팅히어로'를 대만 퍼블리셔인 게이밍플레이어를 통해 출시했다. 네오위즈인터넷도 최근 유날리시 그룹, 하모니 테크놀로지사와 밀리터리 소셜 네트워크 게임(SNG) '위스토리' 대만 수출 계약을 체결했다. 라이브플레이스는 대만의 모바일게임기업 엠젤 타이완과 모바일게임 '듀얼마스터즈'의 현지 서비스 진출 계약을 체결했다.

현지 법인을 설립하거나 전략적 투자를 단행하는 경우도 있다. 위메이드 엔터테인먼트는 자체 개발 모바일 SNG '바이킹 아일랜드'를 최근 일본 법인 '위메이드 온라인'을 통해 출시했다. 현지 서비스를 맡은 '위메이드 온라인'은 9월 말



위메이드 '날아라 팬더'

남아 시장의 교두보를 마련했다. 'CMT 타이'의 전략적 관계사 지엠티소프트'에 지분을 투자한 것. 이번 투자로 게임빌은 성장성 높은 신흥 모바일게임 시장으로 꼽히는 태국을 본격 공략해 동남아 시장을 선점한다는 계획이다.

김영민 기자